

# 안동권씨 추밀공파 정헌공계 목사공 휘 박 세보(족보) 편수

安東權氏

樞密公派

正獻公系

牧使公

諱 博

世譜

編修

## 20世 牧使公 諱 博 家系圖



### 행장(行狀)

#### 20世 박(博·牧使公)

자: 사원(士元)  
1475년 7월 2일 ~ 1547년 2월 20일  
1508년 별제된 후 태인 울진 통천 장단 공주 목사 등으로 5군을 역전하며 선정을 베풀어 세상에서 칭백리로 일컬어졌고 유애비가 세워졌다.  
3공(三公)의 추천을 받아 상주(尙州)목사겸 상주 진병마첨절제사, 증가선대부, 이조참판겸 동지의금부사, 영의정 노수신이 비문을 짓고 석봉 한호가 글씨를 썼으며 신도비가 현존하고 있다.  
묘소: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산 130번지 대사헌공묘 좌쪽

#### 21世 덕여(德與)

자: 치원(致遠) 호: 월담(月潭), 학봉(鶴峯)  
1518년 10월 25일 ~ 1591년 7월 24일  
내직: 대사간 대사성 이조참의 도승지 부제학  
외직: 황해감사  
월사 이정귀가 신도비를 찬하고 동지첨부사 이현

성이 글씨를 썼으며 선원 김상응이 전(篆)했다.  
묘소: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수대곡 축하

#### 22世 극중(克中)

자: 택보(擇甫) 호: 풍담(楓潭)  
1560년 5월 2일 ~ 1614년 4월 17일  
자헌대부 의정부 좌참찬겸 동지 경연춘추관사 판의금부사 세자 우빈객 추증  
저서: 사칠변(四七辯) 풍담유고(楓潭遺稿) 7권  
포저 조익이 비문을 짓고 육곡 서필원이 글씨를 썼다.  
묘소: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수대곡

#### 23世 진기(盡己)

자: 이서(而熙) 호: 초려(草廬)  
1577년 ~ 1629년 12월 28일  
1606년 병오년 식년시 병과급제 도승지 형조참판 역임 예조판서 추증  
묘소: 경기도 양평군 양도면 모도동 유좌

#### 23世 책기(責己)

자: 수오(修吾) 호: 송재(松齋)  
1579년~1630년

문과급제 승정원좌승지 증가선대부 이조참판  
묘소: 충남 부여군 석성면 현내리 봉황산 중등 울좌

#### 23世 직기(直己)

자: 이경(而敬) 호: 명오(鳴臯), 만오(晩梧)  
1581년 9월 21일~1653년 9월 25일  
사마시로 진사 이조참의 추증 이조참판  
묘소: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수대곡

#### 23世 경기(敬己)

자: 자고(子嗣) 호: 월포(月浦)  
1584년 4월 10일 ~ 1661년 8월 5일  
공조좌랑 형조좌랑 도사첨정 역임 보은 평창 청풍 풍덕 안성 5군 수령 추증 호조참판. 명곡 최석정이 지문을 찬하고 부제학 조지겸이 묘표 찬  
묘소: 충남 청원군 풍세면 삼태리 갑좌

#### 23世 위기(爲己)

자: 학고(學古) 호: 백저(白渚)  
1586년 ~ 1622년 2월 20일  
1624년 진사 임격 음보포천현감 증좌승지  
묘소: 충남 공주시 이인면 주봉리 축좌



목사공 휘 박 묘소. 양주시 덕계동 산 130번지



목사공 휘 박 지석. 증통정대부贈通政大夫 승정원承政院 좌승지左承旨 겸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 행행 통훈대부通訓大夫 상주목사尙州牧使 상주진병마첨절제사尙州鎭兵馬僉節制使 권공지묘權公之墓(오른쪽 지석)



권순도비, 신신도비(오른쪽)

사람이 많은 것은 권씨가 최고였다"고 말했다. 숙종조에 충렬(忠烈)이라는 시호를 받고 강화 충렬사(忠烈祠)에 배향되었다. 권행안 편집국장

### “족보 발간에 즈음하여”

국가와 민족이 있으면 역사가 있고 사람은 역사 속에 태어나 역사 속에서 살면서 역사를 창조하는 당사자라 하겠습니까.

국가의 역사는 사회와 학교생활에서 습득하고 있으나 선조의 역사를 가르치는 사회, 학교, 가정은 드물 것입니다.

안동권씨의 역사는 천여 년이나 되었으며, 후에 인 목사공 선조님의 역사는 550년이나 되어 활발한 활동으로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있으며 조상은 나의 근본이며 세월이 흘러도 불변하는 것입니다.

선조의 기록한 님이 항시 우리 자손들의 머릿속에 또한 일상생활에 머물러 있게 하고, 숨겨진 조상

의 위업과 전통을 되살리고자 하여 2025년 10월 29일 임원회의에서 족보 간행을 결의하였습니다. 족보간행에 수반한 제반 주요사항 등의 많은 토의와 결의가 있었습니다.

족보간행은 우리 목사공종중의 획기적인 대사업이며 족보의 간행은 1960년도 월담공 경자보와 그 후 참의공파보를 발간하였고 금번 목사공파보의 발간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까.

그동안 후손들에게 많은 변화가 있고 출생과 사망 등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족보를 간행코져 하는 바입니다.

종원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에 족보의 의미를 되살려 목사공 종중의 단합과 화합으로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동권씨 목사공 휘 박파종중 회장 권영익

### 절의의 선비 목사공 후손 충렬공 권순장

목사공(牧使公, 권박權博, 20世) 후손 충렬공(忠烈公) 권순장(權順長, 24世, 추밀공파)은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어머니를 모시고 강화도로 피난하였다. 김경징(金慶徵)은 강화도로 피난한 왕족 일가와 백성들을 수호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으나 청나라군이 바다를 건너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날마다 술만 마시며 허송세월하였다. 이때 충렬공은 윤선거(尹宣擧) 등과 함께 “와신상담이 지금의 일이요, 술을 마시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글을 보내 책망하였으나, 김경징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히려 화를 냈다. 그러다 청나라군이 바다를 건너 강화도에 상륙하자 김경징은 왕족 일가는 물론이고 처, 모친조차 내팽개치고 도망치기에 급급했다.

사태가 급박하게 되자 충렬공은 두 아우를 보내 늙으신 어머니를 피난하게 하고 김상용(金尙容) 등과 함께 화약 상자를 안고 자폭하고 말았다. 공의 나이 31세였다. 이에 부인 이씨도 남편이 분사(焚死)하였다는 말을 듣고, 세 딸과 두 아들이 먼저 자결하고 부인도 스스로 목을 찢어 절명하였다. 누이도 목을 매어 목숨을 끊었고, 아우 권순열(權順悅)과 권순경(權順慶)은 적과 싸우다 전사하였다. 종 의남도 충렬공의 시신을 찾아 목베를 세운 뒤 충렬공을 따라 자결하였다. 일가 10명이 순절한 보기 드문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강화유수 윤이지는 “절의(節義)한

## 安東權氏 牧使公 諱 博 世譜 編纂 公告

우리 종중에서는 1960년 월담공파보 이후 참의공파보 추밀공파보 대동보 등이 발간되었으나 금번 목사공 휘 박 세보편수 사업을 실시키로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각 소 문중에서는 수단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수단금(명하전)은 받지 아니한다.
  2. 보책은 종중에서 부담하여 무료로 배부한다.
  3. 수단기간 2026년 2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종중에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연락처(종중)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동길 132(제기동)
- ♣회 장: 권영익 (010-5257-3400)
- ♣총 무: 권희원 (010-6252-5454)
- ♣편찬회: 권석원 (010-4016-3856) 경기도 양주시 고덕로 185-57 송덕재



송덕재 전경

### 안동권씨 목사공 휘 박파종중 회장 권영익